스위스의 공공미술 현장.

자연과 도시, 예술이 공존하는 스위스

예술은 박물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
도심 한가운데 붉은 광장, 붉은 소파
전기 자전거로 어반 아트 둘러보고
가이드 따라 스트리트 아트 찾아보고
벽화 한 점도 예술이 되어주는 곳, 스위스

“공공미술(Public Art)”이란 공공의 장소에 놓이는 미술을 뜻한다. 1967 년 영국 미술행정가 존 월렛의 책 <도시 속의 미술(Art in City)>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우리나라에도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넓게 퍼져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 년부터 5 회째 ‘미술관 공공미술 콘퍼런스’를 주최하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한다.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규모 예술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228 개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업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공공미술과도 맥이 닿는 부분이다.

"예술은 박물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모토로 시작된 스위스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도심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공미술답게 야외에 설치된 작품들이 많은데, 광장과 거리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무심코 지나칠 법한 스위스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1. 생갈렌(St. Gallen)의 시티 라운지(City Lounge) – 붉은 광장
스위스 최초의 공공 라운지로 생갈렌의 블라이히(Bleichi) 구역 야외에 설치된 작품이다. 붉은 고무 재질로 뒤덮여 있는 라운지는 예술적인 조명이 함께 설치되어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야외 작품이 되었다. 스위스 태생의 작가, 피필로티 리스트(Pipilotti Rist)와 건축가 카를로스 마티네츠(Carlos Martinez)의 작업으로 “시티 라운지”라 이름 붙여진 이 공간은 시민들과 여행자들이 감탄하며 쉬어갈 수 있는 명소가 되어주고 있다. 소파, 의자, 테이블, 포르쉐 한 대가 설치되어 있다. 낮에는 주변 직장인들이 쉬어가기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준다. 밤이 되면 근사한 조명이 밝혀져 젊은이들을 이끈다.

2. 취리히(Zürich)의 이 바이크 투어
취리히는 수많은 공공미술로 유명한 도시로, 1,300 여 점의 작품이 도시 곳곳에 자리해 있다. 이들을 찾아보는 최고의 방법은 이 바이크다. 로컬 그래피티 아티스트부터 피쉴리(Fischli)/바이스(Weiss)와 같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예술가까지 도시 전체에서 인상적인 작업을 발견할 수 있다. 일부 작품은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가 유용하다. 전체 소요 시간은 2 시간 15 분으로, 5 월부터 9 월까지 매주 두 번째 토요일에 투어가 열린다.

3. 바젤(Basel)의 아트 산책, “레버거베그(Rehberger-Weg)
새롭게 창조된 레버거베그는 6km 에 달하는 하이킹 트레일로, 바젤 근교의 바일 암 라인(Weil am Rhein)에 있는 비트라 캠퍼스(Vitra Campus)에서 리헨(Riehen)에 있는 베옐러 재단(Fondation Beyeler)까지 이어진다. 이 트레일은 두 나라와 두 지역, 두 문화 기관을 연결한다. 그 속에는 셀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티스트인 토비아스 레버거(Tobias Rehberger)가 만든 “24 Stops”의 가이드로 떠나게 되는데, 다채로운 자연과 문화를 걸음마다 담아볼 수 있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4. 루체른(Luzern), 어반 아트가 자연을 만나는 곳
베로(Vero)와 마르코 슈미트(Marco Schmid) 부부는 어반 아트 작업을 하는 커플로, '퀸콩(Queenkong)'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 여행하며 벽화 작업을 통해 수입을 얻는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자연물 드로잉을 자주 하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 자신들의 고향인 루체른(Luzern)이 작업하기 최적의 장소임을 깨닫게 되었다. 부부는 도시와 자연이 루체른만큼 가까이 공존하는 곳은 세상에 없다고 믿는다. 이들이 즐겨 그리는 주제는 동물, 물, 산이다. 이들의 스튜디오는 필라투스(Pilatus)가 시야에 잘 들어오는 도시 한복판에 있다. 이 부부의 작업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베른슈트라쎄(Bernstrasse) 62 번가다. 부부는 건물 외벽 전체에 작업을 진행했다. 커다란 곰이 건물 외벽을 장식하며 시선을 끌어모은다. 특별할 것 없던 건물에 대단한 숨결을 불어 넣었다. 루체른 거리를 걷다 보면 이 부부가 작업한 벽화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들의 작업 리스트는 www.queenkong.ch 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바젤(Basel)의 어반 아트
바젤에는 인상적인 어반 아트와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눈썰미 좋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래킨다. 스위스 및 국제 작가들의 그래피티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거리 예술가의 소소하면서도 기발한 작업들을 도시 여러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무척 특별한 스트리트 아트 투어에도 참가해볼 수 있다. 바젤의 어반 아트 핫스팟을 전문가와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6. 쿠어(Chur)의 뷔어트(Würth) 조각 공원
포룸 뷔어트 쿠어(Forum Würth Chur)의 조각 공원은 인상 깊은 뷔어트 아트 컬렉션의 일부로, 16,000 회 이상의 전시에 빛나는 컬렉션이다. 이 공원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들의 조각품을 위한 무대가 되어주고 있는데, 메인 빌딩에서 진행되는 특별전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작품으로는 장 팅겔리(Jean Tinguely)의 "조세프 시페르를 위한 분수(Fontaine pour Joseph Siffert)"와 니키 드 생 팔(Niki de Saint Phalle)의 "세상(Le Monde)", "용(Der Drache)", "검은 모자이크 나나(Nana Mosaïque Noire)"를 비롯해 놋 비탈(Not Vital)의 "혀(Tongue)", 카를로 보러(Carlo Borer)의 "트랜스포머 400", "로프트쉐입(Loftshape) 370", 베른하르트 루긴뷜(Bernhard Luginbühl)의 "두리틀(Dolittle)", "바우엔덴크말(Bauerndenkmal)"이 있다.

7. 루가노(Lugano)의 스트리트 아트
셀프 가이드 투어로 찾아볼 수 있는 루가노의 공공미술로, 스트리트 아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한다. 루가노 어반 아트(Arte Urbana Lugano: AUL)와 사립 기관이 창조한 수많은 공공 아트를 찾아보는 루가노 스트리트 아트 투어는 루가노의 새롭고 의외의 면모를 발견하게 해준다. 도시 중심에서 시작하는 투어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지 않는 장소에 숨겨진 보물로 안내한다. 역사가 유구한 유적지가 있는 몬테 브레(Monte Bré) 산의 작은 마을 브레와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 모여있는 소렌고(Sorengo)가 바로 그런 곳들이다.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